

“2001년 시작된 ‘MSCI(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ESG 지수’가 대표적이다. 평가요소는 환경 부문에서 기후변화·자연자원·오염물질·환경기회, 사회 부문에서 인적자원·제품책임·이해관계자·사회적기여, 지배구조 부문의 경우 기업지배구조·기업행위로 세분화돼 있다. 산업별 주요 기업에 대한 ESG 평가를 공개하고 있다. 국내에는 유력한 ESG 지수가 있다고 보기 어렵지만 한국거래소가 올해 1월 발표한 ‘ESG 정보 공개 가이드라인’이 있다. 아직까지는 권고사항이지만 향후 기업이 정보공시를 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SG 경영의 성공과 실패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

“2019년 글로벌 컨설팅 기업 맥킨지(Mckinsey)의 분기보고서에 ESG 성과가 고객과 자원의 획득, 비용 절감, 규제 회피, 생산성 향상, 투자와 자산의 최적화 등으로 이어지고 기업의 가치증대로 귀결된다는 논문이 실리기도 했다. 즉, ESG 평가가 좋은 기업은 평가가 나쁜 기업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신용평가를 받고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 2020년 1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래리 핑크 CEO는 세계 주요 기업의 CEO에게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기후변화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 권고안에 근거해 기후변화 성과를 공개하지 않으면 투자를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블랙록의 투자를 받는 국내기업 적는데 왜 영향력은 큰가.

“2019년 글로벌 컨설팅 기업 맥킨지의 분기보고서에는 ESG 성과가 고객과 자원의 획득, 비용 절감, 규제 회피, 생산성 향상, 투자와 자산의 최적화 등으로 이어지고 기업의 가치증대로 귀결된다는 논문이 실리기도 했다.”

“블랙록은 2021년 국내 운용 펀드를 매각하는 등 한국 내 영향력이 크지 않지만, 이는 오히려 미화 8조7000억 달러(9760조원)를 운용하는 블랙록을 국내 기업들이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글로벌 연기금도 블랙록과 비슷한 사례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ESG는 기업 투자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향후 지속적이고 대규모의 신규 투자가 필요한 기업은 ESG 관리가 경영의 최대 현안이라고 할 수 있다.”

해외와 국내 모범사례를 하나씩 뽑아 달라.

“해외 사례로는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를 들 수 있다.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제로 수준을 넘어 마이너스로 만들고 2050년까지 회사 창립 이래 배출한 모든 탄소량을 제로화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국내 사례로는 KB국민은행을 언급할 만하다. 국내 최초로 ESG위원회를 설치해 ESG 경영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활

